

공해추방 '생활속의 야무진 실천'

지역사회에서 일한다

5

대구 함께하는 주부모임

“입술연지에도 합성세제성분인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계면활성제가 없으면 루즈를 발랐을 때 고무 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국 음식을 먹을 때 루즈도 조금씩 먹어 몸속에 독성이 축적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입농축산물 이래도 드시겠습니까? 전남 해남에서 잘 익은 바나나를 서울로 가져가면 5일 내에 곤죽이 된다는데 어떻게 팔리겠나. 대농장에서 20일 이상 걸려 운송된 바나나가 그처럼 싱싱할 수 있을까요?”

50여명의 중산층주부들이 꾸려가고 있는 대구 '함께하는 주부모임'(회장 김혜란) 회원들은 몇 명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만 마련되면 이런 얘기로 접근한다.

대구 지역은 70년대 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적인 운동이 활발하지 못했다. 특히 대학을 갓 나온 젊은이들을 제외한 중산층의 진보적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였다.

따라서 30~50대 중산층주부들이 89년 4월 “우리 지역 공해문제를 우리 주부들의 손으로 해결하는 모임을 만들겠다”며 ‘함께하는 주부모임’을 결성하고 나서

자 대부분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남편과 이웃들로부터 “무슨 여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공해냐” “빨갱이 단체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들이 ‘생활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 넓혀가고 있는 공해추방운동의 새로운 움직임은 작지만 힘이 있다.

주부모임은 그동안 매년 2회씩 10주간 △우리 식탁은 안전한가 △악취피해와 그 배경 △대기오염 △합성세제와 수질오염 △핵의 위험성 △평화운동과 여성의 역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부 공해강좌’를 열었다. 교육기간 중에는 저공해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지역과 환경오염이 심한공단지역을 직접 방문해 공해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했다.

공해강좌 수료식 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부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기도 하는 공해춘극 발표회도 가진다. 강좌 수료식 때마다 ‘강오염’ ‘염치무’ ‘나매연’ 등 상징적인 공해주범들을 모아 놓고 벌인 ‘모의 공해청문회’ 춘극은 대구지역에 공해문제를 확산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

지난해에는 천연가루비누로 홍보했던 ‘한봉지’ 가루비누의 성분 중 계면활성제가 점점 늘어나는

사실을 확인해 국립공업시험원과 회사쪽에 질의서를 보내기도 하고, 주택가에 버려진 수십개의 페드럼통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보내 해결하는 등 작은 성과도 거뒀다.

총무인 한용옥(50)씨는 “앞으로 공해유발업체나 기관을 고발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벌여갈 예정”이라고 밝힌다.

‘저공해 농산물 사먹기운동’도

입해 먹는다. “가격은 농민들이 정하는대로 따르고 꼭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살리는 일에 농민과 함께 동참한다는 취지지요.”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김춘희(47)씨의 설명이다.

주부모임의 올해 사업계획은 다부지다.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각 식당 폐유를 수집해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수은건전지를 많이 모



저공해농산물 판매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주부모임 회원들은 올해안에 ‘환경문제고발전화’를 설치할 계획이다.

강좌개설·춘극등 통해 공해문제 대중화 큰 몫 지역간 연대 노력...전문연구모임 지향

이 모임의 주요사업이다.

경남 함양군·의성군·봉화군·금릉군 농민들과 연결, 쌀을 비롯한 보리, 참기름, 호박말랭이, 무우말랭이, 취나물, 고추잎, 유정란, 고추, 사과, 포도 등을 직구

아오는 학생들에게 상품까지 마련, 수집을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민주여성회의의 ‘환경을 지키는 여성들’과 부산여성회의의 ‘여성환경모임’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전국 여성모임들과

의 상호 정보교환, 공동대처 등의 활동도 해나갈 계획이다.

현 회원 중심으로 1·2월 두달간 열리고 있는 ‘여성지도력개발을 위한 겨울특강’에는 ‘함께하는 주부모임-5년후의 모습은’ 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하는 주부모임’이 큰 몫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죠.” “주부들이 그냥 알려진 사실을 배우고 홍보하는 데 그치

지 않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공해연구모임’이 해야합니다.” 이들 주부들은 5년 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다.

자녀들을 중·고등·대학교까지 보내고 있는 평범한 40~50대 보통 주부들이 뒤늦게 가지는 이 포부가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국내 최고수준(대구시 북구 노원동)을 기록할 정도로 공해문제가 심각하면서도 전문환경단체 하나 없는 대구지역에서 환경운동의 새 장을 열리라 기대된다.

〈대구=김미경 기자〉